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6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24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5631)
다자통상협력과 김 진 과장(044-203-5640), 김연수 서기관(5641)

「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정책 세미나」 개최
- 농업/비농산물(NAMA)/서비스 분야의 DDA 협상 대응전략 점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「**세계무역기구**(이하 WTO) **도하개발아젠다**(이하 DDA) **정책 세미나**」를 개최, DDA 작업계획 관련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.

* '15. 6. 24.(수) 13:30~18:00,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(※ 참고 1 : 세미나 개최 개요)

○ WTO 회원국은 올해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(12.15, 케냐 나이로비)에서 DDA 작업계획* 수립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, 이에 대비해 우리의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.

* 제9차 각료회의('13. 12월)에서 '포스트(Post)-발리 DDA 작업계획'을 '14.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합의하였으나, 논의가 지연되면서 WTO 특별 일반이사회('14. 11. 27.) 결정으로 수립 시한을 '15. 7월로 재설정했다.

□ 김종훈 국회의원(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)은 축사에서 "전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자무역 자유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."라고 하면서, "재직 당시에 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이 예상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좌초된 경험이 있다."라고 회고했다.

○ 아울러, "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상 타결이 어렵고 타결된 후의 파급 효과도 크다."라고 전제하고, "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고 협상 흐름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한다."라고 강조했다.

□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"WTO 회원국들이 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해 DDA 작업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, 금년 말 각료회의 계기에 DDA 작업계획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."라고 전망하면서,

○ "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, DDA 대응전략을 재점검하여 우리 실익을 극대화하겠다."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.

□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부의 「WTO DDA 협상 동향」 발표, 농업/비농산물(NAMA)/서비스 3개 분야에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,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한다.

○ 산업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DDA 작업계획 논의 동향, 농업·비농산물(NAMA*)·서비스의 분야별 쟁점 등을 소개했다.

* 비농산물 시장접근(Non-Agricultural Market Access) : 공산품·임산물·수산물 등

○ 농업(KIEP 서진교 무역통상실장 발표) 분야에서는 농업 국내보조, 관세감축방식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고,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전망과 관세감축 모의실험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.

- 앞으로 관세상한 적용 배제, 핵심 농산물에 대한 최소감축률 축소/배제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.

○ 비농산물(KIET 김수동 연구위원 발표) 분야에서는 관세감축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세율 변화와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고, 평균 관세감축방식, 미양허 품목의 추가 양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.

- 앞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대일(對日)/대중(對中) 수출입 효과, FTA 미체결 개도국 시장 등을 염두에 두고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.

* 향후 구체적인 감축수준 논의에 대응한 시나리오 분석, 세번별로 민감품목을 반영한 차등적 감축률 적용 등 추가 작업 필요

○ 서비스(KIET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발표) 분야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국별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와 투자금액 등을 기초로 해외진출 유망 국가·업종을 도출하였으며,

- 앞으로 서비스협상은 중국·아세안 지역을 대상(타깃)으로, 특히 자유무역협정을(FTA)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국가의 시장접근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.

□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가·업계·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립, 제네바 협상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(☎ 044-203-5630/5631 : 농업·NAMA), 다자통상협력과(☎ 044-203-5640/5641: 서비스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WTO DDA 세미나 계획(안)

□ **행사 개요(안)**

○ **(목적)** ①DDA 작업계획 수립에 대응하여 우리 협상전략 재점검, ②WTO 20주년 계기, 다자통상체제/다자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

○ **(일시/장소)** '15.6.24(수) 13:30~18:00,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

○ **(참석)** 국내 WTO 관련 연구기관·전문가, 관계부처 등 100명 규모

○ **(진행 방식)** DDA 주요 분야별*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

* 농업, 비농산물 시장접근(NAMA : 공산품·임산물·수산물 등), 서비스

□ **세부 내용(안)**

* 각 세션은 1시간씩 진행(발제 15분, 패널토론 45분)

순 서	시 간	비 고
개 회	13:30	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
인 사 말	13:30~13:35	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
축 사	13:35~13:45	김종훈 국회의원 (前 통상교섭본부장)
WTO DDA 동향 보고	13:45~14:00	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
세션 좌장		경희대 채 욱 교수 (前 KIEP 원장)
세션 1 농 업	14:00~15:00	발제 : KIEP 서진교 무역통상실장 패널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, 경북대 유병린 교수, 서울대 임정빈 교수
세션 2 NAMA	15:00~16:00	발제 : 산업연구원 김수동 연구위원 패널 : 고려대 강문성 교수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연구감리위원, 성신여대 송백훈 교수
세션 3 서비스	16:10~17:10	발제 :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패널 : KIEP 김준동 부원장, 경희대 성극제 교수, 한국개발연구원 송영관 연구위원
세션 4 종합토론	17:10~18:00	패널 : 서울대 안덕근 교수, KIEP 최낙균 선임연구위원,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객원논설위원, 산업부 김호철 WTO 과장, 각 세션 발제자

참고 2 WTO DDA 협상 동향 (산업부 발표자료)









2-2 . DDA 협상 주요 분야

시장개방 관련		❶ 농업 (시장접근, 국내보조, 수출경쟁) ❷ NAMA(Non-Agricultural Market Access) * 비농산물 : 공산품, 임산물, 수산물 등 ❸ 서비스
규범 관련	기존협정 개정	❹ 규범 (반덤핑, 보조금-상계조치, 지역무역협정) ❺ 분쟁해결양해
	신규규범 제정	❻ 무역원활화
기 타		❼ 무역과 환경 ❽ 지적재산권 ❾ 무역과 개발

※ 2001년 도하 선언 : DDA 작업계획에 포함될 21개 의제 명시

3-1 . DDA 작업계획 마련 합의

2013. 12월 발리 각료회의 — 2014년 말까지 DDA 작업계획 마련 합의

- 협상기반 관련 선진국-개도국간 대립으로 논의 정체



2014. 7월 논의 중단 — TFA -식량안보 관련 미국-인도간 대립

- ➡ 2014.11월 미국-인도간 합의로 논의 재개

※ TFA : 무역원활화협정



2014. 11월 일반이사회 결정 — 2015. 7월까지 작업계획 채택 합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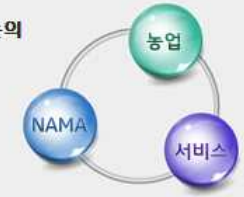
3-2 . DDA 작업계획 협의 가속화

2015. 1월 다보스 통상장관회의 — 목표수준 조정에 공감대

- 실행가능성(doability) 고려하여 DDA 작업계획의 목표수준 조정(recalibration)

2015. 1월 말 ~ — 협상그룹회의 본격화

- 3대 핵심분야(농업, NAMA, 서비스) 중심 논의
- 아르헨티나 Request-Offer 방식, 파라과이 농업 시장접근 제안서 제출



4-1 . 시장접근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

기존 방식으로는 합의 도출 어렵다는 인식

- ➡ 단순화 접근법 논의 (평균관세감축 + R/O, 개도국 우대 최소화)

WTO 사무총장 주재로 관세감축방식 협의

- 주요 7개국 + 농업/NAMA/일반이사회 의장간 논의

개도국 농업협상 목표수준 확정전 관세감축 협의 진행에 반대
Rev4 / Rev3 고수 입장

농업 / NAMA 협상의장, 관세감축 옵션 제시

- 협상 의장, 농업-NAMA 협상간 연계(linkage) 인정

관세감축옵션 2008년 텍스트 방식(출발점) + 평균관세감축방식

➡ 향후 농업/비농산물 관세감축방식 중심으로 논의 전망

4-2 . 농업 국내보조 관련 의견 대립

신흥개도국의 농업 국내보조 감축 관련, 미국 ⬌ 중국 · 인도

-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추가 기여 요구
- 기존 협상결과 존중, 추가 의무부담 수용 불가

* 중국 : 최근가입국(RAM) 지위 고수
* 인도 : 식량안보 공공비축 영구해법 마련,
개도국 특별품목/특별세이프가드 최우선



농업 국내보조 관련 대립이 협상 전반의 bottleneck으로 작용

- 농업 국내보조를 핵심(gateway) 이슈로 진단
- 협상의 우선순위(sequencing) 야기 : NAMA/서비스 논의 부진

➡ 농업 국내보조는 회원국의 정치적 결정 없이 진전 어려움 예상

4-3 . 각료회의 성과물 도출 기대

12월 각료회의를 DDA 작업계획 수립의 실질적 시한으로 인식

- 7월까지 모델리티 수준의 작업계획 마련은 어려울 전망
  » 7월까지 outline 형태의 작업계획 마련➡ 12월까지 추가 작업
- 아프리카 대륙 첫 각료회의에 대한 최빈개도국들의 기대감
  » DDA 협상의 핵심은 '개발' 차원임을 강조



APEC /OECD 통상장관회의에서도 'now or never'의 시급성 제기

- 발리 합의의 협상 모멘텀 및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

사무총장은 조속한 논의 진전과 회원국의 결단 촉구

- DDA 작업계획 수립이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
- 주요 부문의 논의 정체 등 협상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
- 회원국의 정치적 관여와 입장 결정 요청('decision time')

4-4 . 협상 전략에의 시사점

FTA 확산, 교역패턴 변화 등 변화된 무역환경을 반영할 필요

- 농산물, 수산물(NAMA) 분야의
  민감품목 우선순위 재검토
- 既 체결 FTA의 실효세율을 감안하여
  관세감축률을 전략적으로 검토



관세감축방식의 옵션별 유·불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토

➡ 협상 상황 전개에 기민하게 대응

- 기존 텍스트(Rev.4, Rev.3) 에서
  유지해야 하는 필수요소만 최소한으로 선별

5-1 . 농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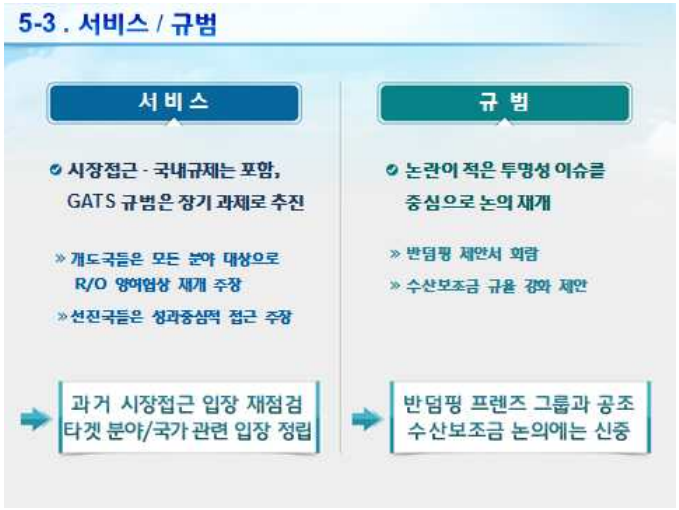
시장접근	국내보조
구간별 관세감축방식 »개도국 특별품목 / 특별긴급관세 등 포함 VS 평균관세감축방식 » 파라과이/ 노르웨이 제안, 농업의장 옵션	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,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 감축 범위 관련 입장차
수출경쟁	**발리패키지 이행**
개도국 수출보조 철폐 시기 논의 '수출금지·제한 규율 강화' 제안서 검토	식량안보 공공비축 영구해법 마련

➡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확보에 주력
관세감축방식 논의에 개방적 입장으로 대응

5-2 . NAMA



5-3 . 서비스 / 규범



6 . 향후 대응 계획

